■ 민족문화연구 제84호(2019.08.31),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pp.719-727.
http://doi.org/10.17948/kcs.2019..84.719

【해외한국학자료 소개】

『낙하생고(洛下生藁)』 해제

이국진(李國鎭)*

1. 정의

본서는 이학규가 해배된 이후 1824년부터 1833년까지 활동하면서 창작한 시(詩)와 문(文) 등을 각각의 독립된 문집명으로 나누고 2책으로 구분해서 수록한 책이다.

2. 편저자사항

이학규(李學逵, 1770-1835)의 자는 성수(醒叟), 호는 낙하(洛下) 또는 낙하생(洛下生)이다. 본관은 평창(平昌)이며, 직계선조인 오대조 배(培, 1640-1674)로부터 인천에 자리 잡아 5대의 선영(先塋)이 인천 근교의 소래산(蘇萊山)에 있었다. 조부 동우(東遇)는 승지 벼슬을 지냈으며, 부친 응훈(應薰, 1749-1770)은 22세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 이학규는 부친이 세상을 떠난 지 다섯 달 되던 1770년 12월에 서울의 외가인 황화방(皇華坊, 지금의 정동)에서 유복자로 태어났다. 그의 외가는 여주(驪州) 이씨 집안으로서 외조부는 성호(星湖) 이익(李瀷, 1681-1763)의 조카인 혜환(惠寰) 이용휴(李用休, 1708-1782)이며, 외삼촌은 금대(錦帶) 이가환(李家煥, 1742-1801)이다.

이학규는 외조부와 외삼촌의 보살핌을 받으며 10여 세까지 외가에서 지내

* 강원대 한문교육과 조교수.

다가 본가로 돌아왔다. 그의 본가는 반송방(盤松坊, 지금의 서소문 밖)에 있었는데, 조부 때부터 살던 곳이었다. 수목과 돌로 가꾼 정원을 갖춘 조촐한 주택에는 천여 권의 장서가 꽂힌 서재도 있었다. 영서(嶺西) 지방에 약간의 토지가 있었으나 자급하기에 넉넉하지는 못했고, 노비는 4-5명 정도 있었다. 독자로서 홀어머니를 모시던 그는 15세에 충청도 진천현의 나주정씨(羅州丁氏)를 아내로 맞았다.

이와 같이 그는 어린 시절부터 남인(南人)의 명문가인 외가의 영향을 받으며 문학과 학문의 기초를 닦았다. 이후 26세(1796)에는 포의(布衣)의 신분으로 『규장전운(奎章全韻)』의 편찬에 참여하였다. 또한 원자궁(元子宮)에 내릴 책을 교수(校讎)하여 바치고, 『화성경리시말(華城經理始末)』을 언서(諺書)로 번역하고, 「무이구곡도가(武夷九曲櫂歌)」를 지어 올리는 등 정조(正祖)로부터 각별한 관심을 받았다. 그는 이삼환(李森煥)・이가환(李家煥)・정약용(丁若鏞)・이명규(李明逵) 등의 남인계 문인 및 한재렴(韓在濂)・신위(申緯) 등과 종유하였다. 20대 후반에 과거에 한 차례 응시했으나 합격하지 못했다.

이학규는 1801년 신유사옥(辛酉邪獄)에 연루되어 1801년 4월에 능주(綾州, 전남 화순군)로 1차 유배되었다가, 같은 해 10월에 황사영 백서사건으로 다시 서울로 소환되어 투옥되었다. 그리고 금주(金州, 김해)로 정배되어 24년간 유배생활을 보냈다. 유배기간 중 그는 개인의 불우함을 지속적으로 작품을 통해 표출하였다. 또한 정약용과의 서신 교류를 통해 그의 문학세계에 공감하고, 유배지 민중들의 생활상을 문학작품으로 구현하였다. 이외에도 우리의 역사・지리・풍속・자연과학 등에도 상당한 관심을 기울여, 「삼한강역변(三韓疆域辨)」・「조석설(潮汐說)」・「전론(錢論)」 등의 논설과 『동사일지(東史日知)』・『해동악부(海東樂府)』등을 집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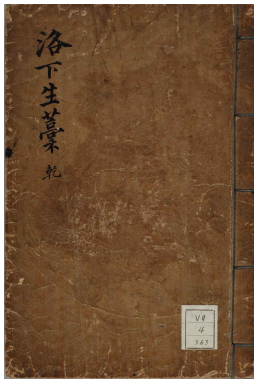
그러다가 1824년(55세) 4월, 장남 재종(在種)의 의금부에 대한 소청이 받아들여져 해배를 맞았다. 그러나 이미 그는 유배지에서 어린 자식(1805)・부인(1815)・어머니(1819)・후실(1821)과 사별한 상태였다. 또한 예전의 고향집도 폐허가 되어 있었다. 결국 이학규는 고향을 떠나 김해를 왕래하면서 유랑하다가 만년에 충주로 이주하여 생을 마감하였다.

3. 구성 및 내용

본서의 권수제는 낙하생고(洛下生藁)이고 건곤 2책이며, 다른 사본과는 달리 괘인사본(罫印寫本)에 필사되어 있다. 두 책에 수록된 시문집의 구체적인 구성과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낙하생고(洛下生藁)』 건(乾)

①「고불고시집(觚不觚詩集)」: 1824년에 창작한「감사삼십사장(感事三十四章)」이 실려 있다.「감사삼십사장(感事三十四章)」은 우리나라의 역사・지리・문물제도 등에 관한 고증, 서화(書畵)에 관한 비평과 감평(鑑評) 내용 등을 기록한 작품이다.



『낙하생고』 건(乾) 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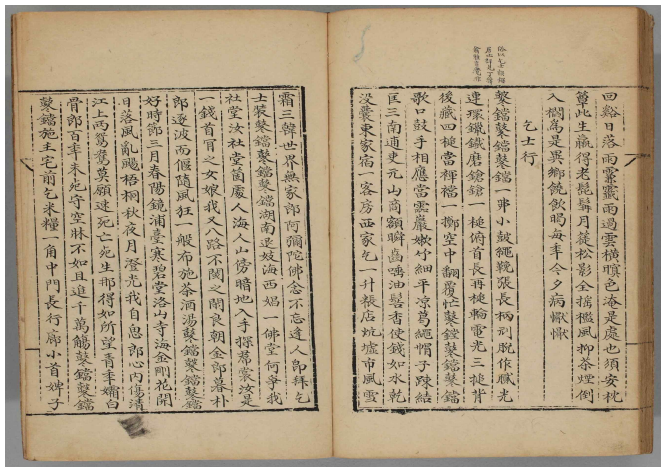
②「백문창화집(白門唱和集)」: 1824년에 창작한 22제의 시작품이 수록되어 있다. 신위(申緯), 김정희(金正喜), 한덕겸(韓德謙), 신명준(申命準), 이명규(李明逵), 신명연(申命衍), 정학연(丁學淵) 등과 화답한 시가 실려 있다.

③「각시재재집(卻是齋再集)」: 1829-1830년에 창작한 시(詩) 37제, 부(賦) 3편이 실려 있다. 이학규는 1824년에 해배된 뒤 고향인 인천과 서울 세거지로 돌아갔다가 궁핍하고 쓸쓸한 환경에 적응하지 못해 다시 유배지였던 김해(金海)로 돌아왔다.「각시재재집(卻是齋再集)」에는 당시 이학규가 김해로 돌아오는 여정에 지은 작품, 김해로 돌아와서 주변 지역을 돌아다니며 지은 작품, 김해 지역 사람들과 주고받은 작품들이 실려 있다. 이 작품들에는 낙척한 신세의 비애감, 외롭고 쓸쓸한 정조가 주를 이루고 있다.

④「국반재집(菊半齋集)」: 1833년에 창작한 시 46제가 실려 있다. 이학규가 세상을 떠나기 2년 전 만년에 지은 작품들로 불우하고 노쇠한 처지에서 비롯된 회한과 애상적인 정조가 주를 이루고 있다. 그리고 호박을 형상화 한「남과삼십사운(南瓜三十四韻)」, 매미・나비・청개구리・파리・개미・고추잠자리를 묘사한「관물우감(觀物寓感)」, 늦가을 집 근처의 풍경과 대상을 읊은「모추서당(暮秋西堂)」, 한양 시가지의 활기찬 생활상을 담은「창덕궁전약포(昌德宮前藥鋪)」,「돈의문외여사우서(敦義門

外旅舍偶書)」, 「다방호동약포(茶房衚衕藥鋪)」 등은 이학규의 관찰력과 묘사력을 잘 보여준다. 이외에도 「국반재집(菊半齋集)」에는 당시 정약용(丁若鏞)·정학연(丁學淵)·정학유(丁學游)·정대림(丁大林)과 화운 또는 차운한 작품들이 실려 있다.

⑤ 「습유(拾遺)」: 「병예(病囈)」, 「취우각기남우촌(驟雨卻寄南雨村)」, 「소청야봉기신자하 겸간권미산(小晴夜奉寄申紫霞 兼柬權米山)」, 「걸사행(乞士行)」 네 수의 시가 실려 있다. 이 중에서 「걸사행(乞士行)」은 걸사패들의 구걸행각을 묘사한 장단구 고체시 작품으로서 걸인에 대한 생동감 있는 묘사와 걸사패들의 노래를 한시로 표현한 부분이 돋보인다.



『낙하생고(洛下生藁)』 건(乾), 「걸사행(乞士行)」.

■ 『낙하생고(洛下生藁)』 곤(坤)

「각시재집(卻是齋集)」: 1824-1827년에 지은 시작품 147제와 산문 6편이 실려 있다. 시는 해배 이후 고향, 김해와 경남 일대, 충주 등을 방랑하면서 지은 작품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 작품들은 해배 이후에도 정착할 곳 없는 신세와 불우한 처지에서 비롯된 애상이 두드러진다. 그중에서 48구의 장편 오언고시 「후인탄(堠人歎)」은 진흙 길에 거꾸러져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장승의 탄식을 빌려 자신의 처지와 내면의식을 대변하였다. 「앙가 오장(秧歌 五章)」은 서사(序詞)에서 모내기의 정경과 노래에 대한 해설을 담고, 본가(本歌) 5장에서 모내기 노래 가운데 여인들의 사설을 한시로 표현하였다.

「각시재집(卻是齋集)」에 수록된 산문 작품들은 「관풍정기(觀豊亭記)」, 「증김치묵서(贈金致默序)」, 「최중원효행록서(崔中原孝行錄序)」, 「답김면운서(答金勉運書)」, 「한제원묘지명(韓霽元墓誌銘)」, 「서반계집후(書磻溪集後)」이다.

「관풍정기(觀豊亭記)」는 마을 사람들의 사랑방 역할을 하는 김해의 관풍정(觀豊亭)을 묘사한 작품이다. 이름이 같은 창덕궁 후원의 관풍각(觀豊閣)을 떠올리며, 유배 전 젊은 시절 관풍각에서의 추억을 회상하며 작품을 형상화 한 부분이 인상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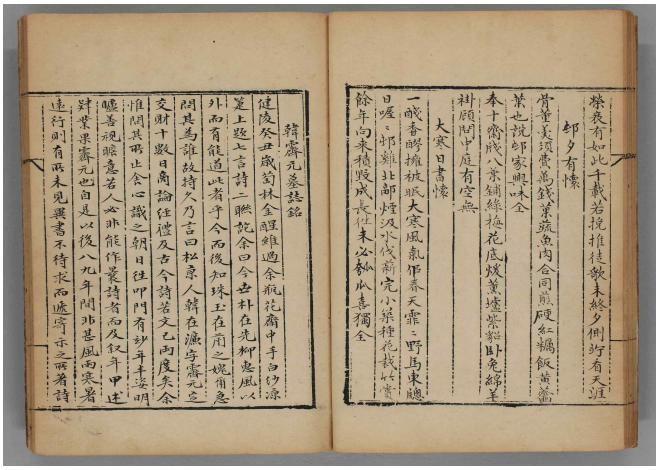
「증김치묵서(贈金致默序)」는 김해부(金海府) 태정리(胎亭里)의 빼어난 경관과 그 지역 사람 김치묵과의 인연을 설명한 뒤, 김치묵이 스스로 노력해서 가업을 이룬 점과 학식도 높은 점을 칭찬하였다.

「최중원효행록서(崔中原孝行錄序)」는 최중원의 효행록에 붙인 서문이다.

「답김면운서(答金勉運書)」는 해배 이후 고향인 인천과 서울 세거지로 돌아와 수많은 가족과 친지들이 세상을 떠나버린 몰락한 집안 형편을 보고 느낀 감회를 김면운에게 적어 보낸 편지이다.

「한제원묘지명(韓霽元墓誌銘)」은 한재렴(韓在濂, 1775-1818)의 묘지명이다. 제원(霽元)은 한재렴의 자(字)이다. 이학규는 한재렴과 1793년에 처음 만난 뒤 유배되기 전까지 문학적·학문적 공감대 속에서 친교를 맺었다. 「한제원묘지명(韓霽元墓誌銘)」에는 두 사람이 처음 만나게 된 경위와 정황에서부터 한재렴의 일생에 관한 중요한 내용이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다.

「서반계집후(書磻溪集後)」는 울산에서 태어나 평생 향리에서 포의로 지낸 반계(磻溪) 이양오(李養吾, 1737-1811)의 시문집을 읽고, 그에 대한 감상과 칭송의 마음을 담은 작품이다.



『낙하생고(洛下生藁)』 곤(坤), 「한제원묘지명(韓霽元墓誌銘)」.

4. 자료 가치

1) 서지적 가치

현재까지 이학규의 문집은 필사본 여러 종이 국내외에 흩어져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1985년에 한국한문학연구회가 국내외의 유고(遺稿)를 수집하여 영인(影印)하고, 『낙하생전집(洛下生全集)』 3책(아세아문화사)을 공간(公刊)하였다. 여기에는 동양문고장본(東洋文庫藏本), 일본 천리대(天理大) 도서관장본(圖書館藏本), 서울대 가람문고본, 서울대 규장각장본(奎章閣藏本), 횡성(橫城) 방계가본(傍孫家本)의 유고가 사용되었다.

이후 한국고전번역원에서는 저술 연대순으로 유고를 다시 편집하여 『낙하생집(洛下生集)』(한국문집총간 290)을 간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된 『낙하생집(洛下生集)』, 서울대 규장각에 소장된 『인수옥집(因樹屋集)』과 『낙하생고(洛下生稿)』, 연세대 중앙도서관에 소장된 『낙하생고(洛下生稿)』와의 이본(異本) 대조가 시행되었다. 이후 2000년대에 들어 각 대학 및 개인 소장도서와 해외전적의 발굴조사가 이뤄지면서 이학규의 새로운 유고(遺稿)가 상당수 발견되었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발견된 이학규의 문집과 선집 이본 현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이학규 문집 이본 현황

	자료명	소장처	책수	비고
1	『洛下生集』	국립중앙도서관	1책(32장)	洛下生集(시 96제 218수) 洛下生詩 補遺(시 11제 11수)
2	『洛下生稿』	서울대 규장각	2권 1책	洛下生稿 上(觚不觚詩集) 洛下生稿(白門倡和集, 卻是齋再集, 菊半齋集) 洛下生稿 下(卻是齋再集) 洛下先生藁(拾遺)
3	『因樹屋集』	서울대 규장각	1책(42장)	因樹屋集(시 16제 25수) 秋樹根齋集(시 100제 233수)
4	『洛下詩』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1책	因樹屋集(시 23제 45수) 秋樹根齋集(시 96제 173수)

5	『洛下生稿』	연세대 국학자료실	2권 1책	洛下生稿 上(甌不甌詩集) 洛下生稿(白門唱和集, 卻是齋再集, 菊半齋集, 拾遺, 卻是齋集)
6	『匏花屋集』	단국대 퇴계기념도서관	1책(76장)	匏花屋集七律抄(59제 79수) 匏花屋集七絶抄(39제 107수) 匏花屋集五律抄(57제 63수) 匏花屋集五絶抄(5제 37수) 이상 이학규의 작품 수. 『匏花屋集』에는 박제가의 작품도 부기되어 있음.
7	『洛下尺牘』	영남대 도서관	1책	총간본에 수록된 척독과 내용 동일
8	『匏華屋集』	계명대 도서관	1책	시 58제, 문 2편
9	『逸名稿』	임형택 선생	1책	시 82제 149수, 문 50편 附 정약용 문 3편
10	『新腔』	임형택 선생	1책	律詩(53제 69수), 絶句(36제 135수) 附 정약용 시 2수
11	『文漪堂集』	서강대 로욜라 도서관	1책	시 22제 24수, 문 28편
12	『洛下詩話』	단국대 퇴계기념도서관	1책(36장)	시 88제 156수, 문 6편
13	『洛下生卷集』	버클리대 동아시아문고	1책(35장)	表題 '秋樹根齋集' 시 97제 218수
14	『洛下生集』	버클리대 동아시아문고	1책(29장)	表題 '秋樹根齋集' 시 97제 212수
15	『秋樹根齋初稿選』	버클리대 동아시아문고	1책(26장)	시 59제 130수 附 정약용 시

〈표 2〉 이학규 선집 현황

	자료명	소장처	책수	간략 내용
1	『八家精華』	고려대 도서관 외	2권 2책	칠언율시 46제 50수
2	『申紫霞詩抄』	경희대 도서관	1권 1책	칠언율시 45제 49수
3	『茶山詩零』	고려대 도서관	1책	因樹屋集 시 20제 秋樹根齋集 시 86제
4	『雜詩』	고려대 도서관	1책	山店十首
5	『東遊詩』	고려대 도서관	1책	칠언절구 35제 134수 칠언율시 53제 69수

6	『秋雲茶集』	안성이씨 소장	1책(88장)	시 120제 235수
7	『五家詩摘句』	버클리대 아사미문고	1첩(20장)	시 5제 5수
8	『今古詩選』	동국대 경주캠퍼스 도서관	1책(32장)	「夏日山居」(「奉和洌上夏日田園雜興, 戲效楊誠齋體」) 24수

이 가운데 본서는 이학규가 해배 이후부터 세상을 떠나기 2년 전까지 삶의 궤적과 문학 작품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서지적 가치가 있다.

2) 내용적 가치

본서는 이학규가 유배에서 풀려난 해인 1824년부터 세상을 떠나기 2년 전인 1833년까지의 행적과 교유 관계, 문학의 양상과 학문 성향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내용적 가치가 있다. 우선 본서의 여러 작품들은 이학규가 해배 이후에 신위(申緯), 김정희(金正喜), 정약용(丁若鏞), 정약용의 자제들과 활발한 문학적 교유를 맺은 사실을 잘 보여준다.

본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학규의 시작품들은 해배 이후에도 김해와 충주 등을 떠돌아야만 했던 낙척한 신세, 그 속에서 느끼는 쓸쓸함과 외로움의 정서, 불우한 삶의 고뇌에서 비롯된 내면의식의 다채로운 국면과 시적 형상화 방식을 잘 보여준다. 아울러 걸사패들의 구걸행각을 묘사한 「걸사행(乞士行)」, 영남지역 모내기 노래를 형상화한 「앙가 오장(秧歌 五章)」 등을 통해 영남지역 민중들의 실상을 적극 반영하고자 했던 이학규의 현실주의적인 시세계를 확인할 수 있다.

학문 성향과 관련해서는 「고불고시집(觚不觚詩集)」에 실려 있는 「감사삼십사장(感事三十四章)」이 주목된다. 이 작품에는 우리나라의 역사・지리・문물제도 등에 해박한 이학규의 실학자적인 면모와 서화(書畵)에 대한 비평적 안목이 잘 나타나 있다. 이 외에도 「각시재집(卻是齋集)」에 수록된 기(記) 1편, 서(序) 2편, 서(書) 1편, 묘지명(墓誌銘) 1편, 후서(書後) 1편을 통해 이학규의 산문 세계를 살펴볼 수 있다. 그중에서도 「한제원묘지명(韓霽元墓誌銘)」은 박지원(朴趾源)・정약용(丁若鏞)・신위(申緯) 등과 교유하며 시명(詩名)이 높았고,

『고려고도징(高麗古都徵)』을 저술했던 한재렴(韓在濂, 1775-1818)의 생애를 구체적으로 고찰할 수 있으며, 이학규와 한재렴의 교유 관계를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 참고문헌

백원철, 『낙하생 이학규 문학연구』, 보고사, 2005.
심경호, 「서정자아의 근대적 변모와 그 한계—낙하생 이학규의 한시를 중심으로—」, 『한국한시의 이해』, 태학사, 2000.
이국진, 「이학규 한시의 표현기법과 미적 특질 연구」,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2010.
임형택, 「낙하생전집 해제」, 『낙하생전집』 상, 아세아문화사, 1985.
정우봉, 「낙하생 이학규의 산문 세계」, 『한국실학연구』 제6집, 한국실학학회, 2004, 185-212면.
정은주, 「낙하생 이학규 문학의 변모 양상 연구」, 성균관대 박사학위논문, 2011.